조선후기 江華史庫의 운영

강 문식

목차

I. 미리갈
II. 史庫의 설치와 移建
III. 사고 관리의 규정과 실상
IV. 강화사고의 활동: 考出
V. 餓음발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江華史庫의 설치 및 移建 과정과 사고 운영의 실상 을 검토하였다. 강화사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1605년(선조 38)인데, 기존에는 이때 마니산에 사고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지만 1606년 제정된『京外史庫守直監司』 및『承政院日記』의 사고 이전 기사 등 을 종합해 볼 때, 최초의 강화사고는 마니산이 아니라 강화부 속내에 설치되었음을 가능성이 높다. 강화사고가 정착된 것은 1660년(현종 1)이며, 이후 1707년과 1813년 등 2차례 건축되었다. 정착사고의 수직은 강화부 제외가 담당했으나, 1726년(영조 2)에 史庫부간이 실질되면서 참봉이 수직 책임을 맡게 되었다.

강화사고는 섬이라는 임지 조건 때문에 습기에 의한 건물 및 소장 사적의 손상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의 강화사고 운영은 손상된 건물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투고일 : 2013. 1. 31
  성사일 : 2013. 2. 6-21
  성사완료일 : 2013. 2. 22
修正하고 정기적인 혐오를 통해 장식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졌다. 강화사고 건물의 수개외 장식 포식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영조대로, 이는 영조대에 강화사고의 관리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조대에는 강화사고 포식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그나마도 제한 24년 동안 포식가 2번밖에 실시되지 않는 등을 전반적으로 사고 관리에 소홀했다.

강화사고는 외사고 중 한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추관사고의 장치가 미비하여 외사고 시적을 총출해야 하는 경우 우신했던 고충 대상이 되었다. 이점에서 강화사고는 외사고이면서도 내사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江華史庫, 정촉산, 史庫奉, 嘉興, 죽出